

**동우컬럼**

발바닥 같은 사람들

어느 배우가 영화제에서 대상을 땀을 때 “저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한 스테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맞다. 영화에서 주연배우가 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그 외의 스태프가 없다면 영화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 그들은 영화의 마지막 엔딩크레딧에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으로 치하가 끝나지만 그들의 공적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어느 단체나 어느 일이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바닥처럼 저 아래서 묵묵히 보이지 않게 일하는 자들이 있다. 발바닥이 있어 몸을 지탱하듯 그런 자들이 있어 단체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다. 설교자나 사회자, 성가대원 등은 보이는 자리에 있다면 차량을 안내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자막을 하고, 방송을 주관하는 자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없다면 방송송출도 불가능하고, 질서유지도 어려워 예배가 힘들게 된다. 나는 그들이 항상 그곳에 있음에 늘 감사한다.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다(대상9:2).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당연히 일찍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은 누구까.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제단의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그릇을 닦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고 굶은일을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진심과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와 자기 일에 임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은 발바닥이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일한다. 그런 그들에게 주목하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위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아멘!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목사님은 지난 일본집회를 마치고 제자들 앞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내가 유언처럼 너희에게 말한다.”

목사님은 이번 추계산상집회를 통해서도
연이어 이를 내내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튿날은 목사님 개인의 내밀한
간증을 통해 더욱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기도로 사셨고, 기도의 맛
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이시대
목사님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은
'내 일생은 기도였다.' 하시지 않나. 그러
하기에 본인의 설교를 보고 들으며, '이는
내가 한 설교가 아니다. 내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다. 모든 일을 마칠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란 두 친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노력’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이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목사님께서 노력을 또 하나의 친구로 말씀하실 때는 기도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수많은 국내집회 준비과정을 통해 목사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술하게 보아왔다. 하다못해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 디자인조차도 허투루 다루시지 않는다. 집회 준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시지 않던가. 어떤 일

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해보았느냐?’ 질타하시는 이유다.

그리고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 ‘부
정이란 전염병은 적보다 무섭다’고 말씀
하셨다.

“나는 부정을 아주 싫어합니다. 부정을 말하는 사람하고는 목사, 장로라 해도 말조차 섞지 않을뿐더러 아예 돌아섭니다. 더군다나 부정이란 놈은 전염력이 아주 강해서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민수기에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족장 중 10명이 부정을 전파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녹아내립니다. 가서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10명의 패배주의적 진단은 순식간에 공포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원망과 불평을 폭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이다.

기도 역시 실천의 영역이다. 아무리 목사님이 강조해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간증하며 보여주어도, 기도의 실천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부뚜막의 소금이요, 서 말의 구슬일 뿐이다. 그 소금을 음식에 넣어야 짜든지 말든지 그 맛을 낼 것이고,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만 목걸이가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목사님은 ‘기도와 노력’이

이든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 능력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인용하시며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신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쏟아붓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다. 목사님이 대충, 얼렁뚱땅을 제일 싫어하시는 이유다. ‘배사 성공하려면 대충이라는 균을 잡아내

랩이 옷을 찢으며 항변해보았으나 그 무서운 부정의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과 씨앗은 골라 씨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 하나가 들어와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은 싸워보거나 하죠, 이 부정이라는 내부의 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놈입니다. 오늘 결단하여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내기 바랍니다. 할렘루아!”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KBS 아레나홀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38:1~9)



기도를 잃은 자, 빈총 갖고 품 잡는 자다

안수한 교단에서 제명되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고, 올림픽공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 예배 처소가 없었고, 교계 매스컴들이 저를 비하하고 모함했고, 가족들이 다 떠났고, 기도원이 재판에서 패소했었고, 그 무시무시한 KGB에 끌려갔고, 병 고친다는 집회 문구 때문에 재판정에 서야 했고, 야외집회 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몰아쳤었고, 사지가 마비되고 눈이 실명 위험에 처했었고, 간이 90% 굳었다는 진단도 받았고, 코로나로 교회가 닫혔고...

목회 40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 입가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분명 그 세월은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의 길이었는데, 돌아보니 아름다운 추억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세월은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세월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였고, 눈 위에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와 같다

음식 맛도 먹어봐야 알고, 기도 맛도 응답 받은 자만이 아는 법, 목회하기 전에도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통해 ‘딴글을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 믿는 아들이 못마땅해서 집을 나가신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사야 50장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으며,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며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8~32절을 통해 장차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먹고, 심판하신다는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교제를 하니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회 성전 이전이란 큰 문제 앞에서도 애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7~11).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데 제가 왜 염려,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바다가 벽을 이루게 하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가 날아들게 하였고, 기도하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으며, 기도하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고, 기도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염

려가 많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기도는 현존하는 문제의 열쇠거든요. 국가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삼상7:5~10). 앗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조롱하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하사 185,000의 산헤립 군대를 하룻밤 새 진멸하셨고, 도망친 산헤립은 그의 두 아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사37:35~38). 제가 평화통일 기도성을 회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

습니다. 가뭄, 폭우, 지진, 허리케인..., 무섭지요. 그러나 이것 역시 기도하면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을 기도로 열어 가뭄을 해소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2~47).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으셨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사 소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병들었습니까?

죽을병입니까?

히스기야처럼

방성

대 곡

해

보

아남고, 어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고통과 저주에서, 병과 가난에서 해방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107:19~20). 예레미야서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다른 거 다 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삶의 1순위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메추라기를 잡아봐야 얼마나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홍해를 가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가 어렵고, 힘들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코 기대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낮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은밀히 기도하고(마6:6), 부르짖어 기도하고(렘33:3),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마18:19). 또 눈물로 기도하고(시126:5), 감사로 기도하고(빌4:6),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야 합니다(고전14:2). 매일 이렇게 무시로 기도로 살면 기도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이 무서워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했으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26:41)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요(삼상12:23),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4),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세
요 .
히 스
기 야 의
기도에 15년
수명을 늘려주셨
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치 실탄 없는 총을 들고, 빈 지갑을 들고 품 잡는 자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밥이 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총알이 있으면 곰이 나타나도, 멧돼지가 나타나도 쏘서 쫓으면 되고,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 경내가 평안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 기도하는 것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일진대(살전5:18),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어찌 살

:: 객원칼럼 ::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빨리 부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만능주의나 배금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맘모니즘(mammosim)이란 돈이나 재산, 소유,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울무에 걸리고, 로또복권을 사려고 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로또복권 당첨금 중에 가장 많이 지급된 사람의 경우 1등 당첨금이 40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각종 자선단체와 심지어는 조폭들까지 물려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바람에 가족들이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근황을 취재하려고 살던 동네를 찾았는데 당사자는 없고 동네 노인 분께서 “돈벼락도 벼락이야, 벼락 맞으면 죽어.”라고 하셨는데 깊이 생각해봐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맞아 죽더라도 돈벼락 맞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까? 돈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소부재근(小富在勤)이요, 대부재천(大富在天)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 달려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껴 쓰고, 남은 것으로 선한 일에 나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나 땀 흘리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는 자는 뜯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바람에 불려 다니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역대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조사해보니 평탄했던 가정이 돈 때문에 깨어지고,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내린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로또복권 2등에 당첨되어 처음에는 너무 기뻐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번호 하나만 더 많았으면 몇십억을 더 받았을 텐데...’ 하며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영똥한 것을 붙잡으려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과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상화평 목사

:: 성경에세이 ::

전하자! 예수

여보게!
전쟁과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세상이 정말 심상치 않네. 세계 어디를 봐도 불안과 공포가 만연해 있지.

이런 와중이니 믿는 자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네. 이것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이기 때문이야. 그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지금이 말세라고 하지. 맞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지. 그때와 시는 모를 뿐, 그날이 임박하고 있다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는 내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라고 하셨네. 시대가, 세대가 악이 관영하여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야.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네(마 24:13).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하네. 신앙의 불씨가 여전히 활활 타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야 하네. 불씨가 사그라들었다면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 있을 때 다시 신앙의 불씨를 살려야 하네. 완전히 불이 꺼지기 전에!

그리고 하나 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 구원하기를 서둘러야 한다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데, 지옥은 그야말로 언급하기도 싫은 처참한 곳이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이 지글지글하는, 그러나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가까운 가족부터, 친지, 더 나아가 친구까지 전도해야 하네. 때가 가까웠음을,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을 2천 년 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장차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될 것임을 전하게나.

여보게!
‘천천히 하지.’ 하는 단일한 생각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네. 내일은 우리 소관 밖이야. 할 수 있는 지금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야. 내일 말고 오늘 꼭 하게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봉우

:: 책을 펴다 ::

현실을 직시하라

야구에서는 홈런을 쳐도 1, 2, 3루 플레이트를 모두 밟고 끝으로 홈플레이트까지 밟아야 점수로 인정된다. 흥분해서 한 플레이트라도 밟지 않고 건너뛰면 제야무리 담장을 넘기는 홈런일지라도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풍선이 줄에 매여 있지 않으면 풍선은 하늘로 오르다 터지고 만다. 꿈과 계획이 풍선이라면 그것이 매여 있는 줄은 현실이다.

이 말인즉슨 내 회사의 재력, 회계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내 교회의 현재 재정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계획이 선다. 비행기가 날 때 활주로를 내딛는 이륙의 과정이 있어야 고공으로 솟아오르게 된다. 처음부터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큰 비행기일수록 활주로를 긴 것을 깨달아

야 한다.

현실 직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자 할찐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눅14:28~32).

꿈과 이상은 크게 잡되 현실을 직시하는 자가 돼라. 시세에 밝은 자가 돼라.

—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2001년 12월 2일 주일. 그날도 어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교회로 가서 기도했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교회로 경찰이 찾아왔다. 서구의 어느 동네에 사는 이 교회 성도가 119구급차에 실려 갔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교회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장례나 사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교회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도대체 누구지?’ 하던 차에, 산모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집사람이다. 첫아이이고 예정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집사람은 혼자 있었고, 집주인이 119구급차에 동행했다. 산모의 태반이 떨어져 위급한 상황에 병원에서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니 경찰이 교회까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아들은 임신 8개월 만에 1.72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태반이 떨어져 조기 분만된 신생아의 경우, 그 당시만 해도 생존율이 30% 정도로 아주 낮았다. 아이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의사는 중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며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주셨다. 인큐베이터에서 2주를 보낸 뒤 아이가 잘못되어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퇴원했다.

그아이가 올해 12월, 23세 나이로 해병대 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들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교회 대학부에 나가면서 임원도 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병대에 지원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바로 며칠 후면 전역하게 된다. 얼마 전,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니 군대에서 모든 적금 천만 원을 서울성전 건축헌금으로 드리자고 말했다. 아들은 잠깐 고민하는 기색이더니 순종하겠다고 대답했다. 장차에는 주의 종 길을 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생명과 건강, 물질과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장순천 목사

:: 성도 간증 ::

:: 빛이 되리라 ::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암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택 비전예수중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황금자 권사입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3년 당시 중국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한국에 나오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혼자

집에서 기도를 했었기에 주위에서 전도를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응하며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에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치료를 위해 군포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 혁신예수중심교회의 안인숙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군포에 있는 교회를 연결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암 치료로 힘든 와중에 교회에 나가라는 안인숙 사모님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났고, 군포 예수중심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기에 하나님께, “제가 수술을 받다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하였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으로 수술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후에 평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비전 예수중심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치

막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앞둔 와중에 인천교회 4부 예배에 참석하여 이초석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니 암이 깨끗이 나았다는 믿음이 생겼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고 남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암이라는 위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께로 부르시려는 큰 계획안에 있었습니 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주님을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초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 비전예수중심교회 황금자 권사

가장 잘 응답 받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는 것도 잘 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떤 기도는 보류하시고,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는 것도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다. 그럼 거절당하지 않고 가장 잘 응답받는 방법은 뭘까? 바로 거절당하지 않을 기도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믿는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자녀가 게임기 사달라고 매일 졸라대면 그 모습이 부모를 기쁘게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자녀가 성경을 읽고 싶다고 어린이 성경책을 사달라고 하면 어떨까? 부모가 너무 기뻐하며 바로 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거절당하지 않고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온통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걸 알 수 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다. 양식은 부유한 양식, 풍성한 양식도 아니고 일용(日用)할 양식, 하루 쓰기에 맞을 양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같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당연히 더하신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영성에 훨씬 관심이 많으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말씀을 잘 지키며 우리가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다. 다급하고 갈급할 때야 어쩔 수 없고, 필요에 따른 기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거절당하거나 보류당할 기도를 할 시간에 응답받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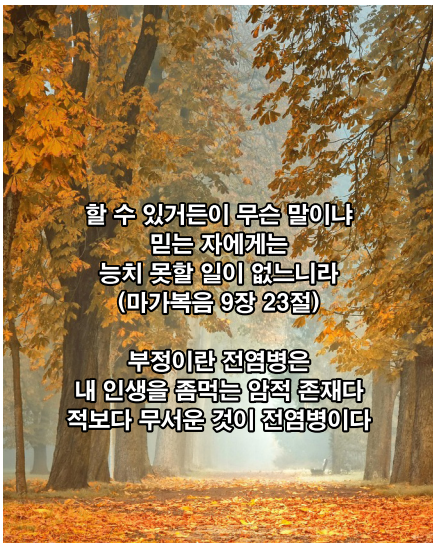
어린 나귀의 고백

5년 전, 교회 신문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글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교회 신문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던 애독자였기에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손사래를 쳤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어린 평신도가 존경하는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었고, 더욱이 교회 신문이 전도용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훗날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였을 때, 혹시라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글을 쓰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글을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지금 당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총회장 목사님께서 대뜸 국장님에게 저를 지칭하며 신문 글을 안 쓰냐는 말씀을 하였고, 국장님은 제가 곧 글을 쓰기로 했다는 답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들에게 말하기보다 듣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글재주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부담감 때문에 너무 버거워서, 글 쓸 차례가 돌아오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의 추억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는데, 장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어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추억담을 글로 써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 돈독해짐을 느끼고,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함으로 글을 끝맺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고한 신문 글을 통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점은 지난 교회 신문(2022.4.17)에 실린, 복음의 불모지였던 가문에 어머니께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신 외할머니에 대한 간증 글이었습니다. 글 말미에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테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총회장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종이라고 인정하는, 타 교단의 수석 장로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증이 또 지난 교회 신문(2023.6.25)에 실렸는데, 타 교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

신 큰아버지께서 그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 오해하던 큰아버지도 감동을 받아 그 간증 글을 친척들의 단체 카톡방에 올리셨고,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질색하고 무시하던 유교 사상으로 가득 찬 종갓집의 친척들 모두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신기해 보였던지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여 친척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과 간증 속 타 교단 수석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 총회장 목사님과 34년간 껍박받던 어머니의 믿음이 신원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교회 신문에 글을 쓰게 되었을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왜 이토록 작은 나를 부르셔서 글을 쓰게 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몸소 깨닫습니다. 지금도 글을 보내 달라고 연락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여전히 부족한 어린 나귀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마21:2~3), 사랑하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정명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부정이란 전염병은
내 인생을 썩먹는 암적 존재다
적보다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다